

‘만인보-현기증’
강용면 초대전

‘백만인보’

민중들의 삶 결집을 통해 하나가 된다



← 강용면 작가의 작품

↓ 순창 육천미술관 전경



‘만인보-현기증’으로 미술계에 이름을 각인시킨 설치미술가 강용면 작가가 순창군 공립 육천미술관에서 전시를 갖는다.

미술관의 기획 초대전인 ‘백만인보’는 작가의 대표작인 만인보에 연속적인 구성을 더한 것으로, 작품은 시국이 주는 민중들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담아낸다.

강 작가는 현재의 혼돈세계를 5cm 안에 수많은 민중들의 얼굴로 응축해낸다.

작품은 작가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모습과 섬진강에 흐르는 강물사이의 모진 풍파 속에서 견뎌낸 바위와 같은 느낌을 한데 엮어 주변에 사는 민중들의 삶으로 표현된다.

작은 조각조각으로 구성된 작품 속 민중들의 삶은 결집과 결합

오늘부터 순창 육천미술관서
만인보에 연속적 구성 더해
민중들의 감정 담아내

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룬다.

20m로 접철된 대작의 설치작품 면면에는 우리 역사속의 인물인 안중근 의사, 위안부소녀상, 신채호 등 근대사적인 인물을 비롯해 현대의 민초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희열, 기쁨, 슬픔 등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전시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편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위치한 육천미술관은 70년대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하여 2016년에 개관했으며, 개관기획전으로 순창 출신인 원로화가 박남재 화백의 전시와 한국화가 이철량 교수의 전시를 열기도 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기업 파트너 문화예술 기부 업체 모집

파트너, 3월 31일까지

업체 기부, 4월 30일까지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 파트너 및 문화예술 기부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 파트너 모집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선정된 기업은 영화제 기간 동안 인쇄광고 및 옥외 홍보물, 프로모션 부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기부 기업 모집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기부를 원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영화제 사무처 측은 “행사 공간 이외에 남부시장, 한옥마을 등 전주 유명 관광지를 통해서 영화제와 함께 영화제 파트너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 동안 열린다.

문의는 전주국제영화제 마케팅팀(063-280-7900)에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인디 걸그룹 ‘바버렛츠’가 2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대표 공연인 ‘art stage 소리’ 무대에 오른다. 안신애·경선·박소희로 결성된 바버렛츠는 2012년 결성 이후, 2014년 첫 음반을 발표할 때까지 흥대와 이태원 클럽 등에서 1950~6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화음 중심의 음악을 탄탄한 가창력으로 재현하면서 ‘시간여행 걸그룹’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인지도를 구축해 왔다.

내일 소리문화전당 ‘art stage 소리’ 무대에
1960년대 미국 음악 탄탄한 가창력으로 재현
해외 뮤지션들로부터 큰 호평 얻고 있어

바버렛츠는 2014년 5월 데뷔앨범 《바버렛츠 소곡집#1》을 발표한 뒤 지난 2년간 해외에서만 무려 7차례 공연을 가졌고 최근엔 북미투어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북고적 분위기의 자작곡과 리메이크곡

으로 구성된 데뷔앨범은 해외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들이 노래하는 유류브 동영상에는 ‘아이돌 가수와는 다른 K팝’이라는 찬사와 해외 뮤지션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미국 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영국 더 그레이프 이스케이프 등 주요 해외 페스티벌에 잇따라 초청을 받았다. *공연은 전석 3만원. **문의 063-270-8000 · 7833.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24일 ‘문화파출소 덕진’ 개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파출소 덕진’을 오는 24일 개소한다.

문화파출소 덕진은 ‘문화파출소 조성·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이 전국 10개의 치안센터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범죄피해자의 예술치유, 주민 자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파출소는 덕진경찰서 피해자종합지원센터(구, 금암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1·2층에는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오가는 다양한 사람방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곳에는 경찰인력 센터장 1명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보안관 1명이 상주해 치안시설로 기능할 뿐 아니라 주민동호회나 자발적 학습공동체 등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도 활용될 예정이다.

‘문화파출소 덕진’은 개소식을 기념한 다양한 시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한정·한줄 소심한 이야기, 드로잉 다이어리, 바느질 한판·이야기 두 땀 등 일상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관계를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번신 오색동률, 개인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캘리그래피 마음을 쓰다 등 관계 형성에 집중한 지역주민대상 자문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문화파출소 덕진’은 일상 속에 문화예술을 정착화 하는 것을 목표로, 주민·도민들의 문화활동거점 공간이자 예술가·주민들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개소식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금암치안센터 범죄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개소를 축하하는 터잡기를 시작으로 차복순 명장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다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20일)

▷쥐띠
48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라.
60년생: 주변의 시기와 질투때문에 신경이 곤두서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72년생: 이성과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운이다.
84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를 요한다.

▷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
61년생: 이성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긴다.
73년생: 모든 일을 조심하고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진행할 것.
85년생: 한쪽의 말만 듣고 편 가르기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울 때.

▷호랑이띠
50년생: 짐작은 금물.
6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74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답답해 할 수 있으니 함께 도모하는 일은 불리하다.
8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투기나 투지는 불리하다.

▷토끼띠
5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운.
63년생: 남성은 여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에 중점을 두라.
7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어려움도 잘 넘어갈 것이다.
87년생: 동기간과 함께 화합하는 일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용띠
52년생: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64년생: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6년생: 자신보다 약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88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

▷뱀띠
5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
65년생: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운.
77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려라.
89년생: 외면적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운.

▷말띠
54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에 휘말리게 된다.
66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있으니 먼저 내보내면 큰 손재수는 없을 것이다.
78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니 추진하라.

▷양띠
55년생: 상황에 대한 관태를 느낄 수 있는 운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중간중간 막힘이 생긴다.
79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다.
9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혹은 남성은 여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는 운이니 주의하라.

▷원숭이띠
56년생: 금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68년생: 문서에 결실이 비추니 빨리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80년생: 급하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92년생: 익숙했던 일이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라.

▷닭띠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유행은 삼가라.
69년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81년생: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3년생: 동기간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운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라.

▷개띠
46년생: 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듯.
82년생: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욕심으로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59년생: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다.
83년생: 초심을 잃지 마라. 막상 얻으면 마음이 변하게 되니 잃어버린 후 에 후회하는 각이다.